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fathers' beliefs on child rearing & children's self-perceptions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아동복지학전공

부 교수 송 순**

박사과정 송 희 옥***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Song, Soon

Doctorial Course : Song, He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beliefs on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comprised of 167 third-grade children (ages 8-10) and their father.

To summariz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degree of father's beliefs about child rearing by number of child , father's education, father's job, level of lif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child in independence and by number of child, level of lif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child in accommodation.

Second, children's self-perception was related to father's education, father's income, father's job,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child, child's gender,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father's job.

Third,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beliefs about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belief's on the creativity, problem-solving skill, accommodation.

Father's SES status,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child was a positive relationship children's self-perceptions. Father's beliefs on the creativity was a positive relationship children's self-perceptions but father's belief's on the accommodation was a negative relationship children's scholastic performance, behavioral conduct.

△주요어(Key Words) : 방문판매(door-to-door sales), 방문판매직원의 필요능력(door-to-door salespersons' vocational ability expectation), 방문판매직원의 현재능력(door-to-door salespersons' aptitudes)

1. 문제제기

21세기는 아동들이 성장하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경향을 4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

* 이 논문은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송 순 (E-mail : ss6653@wonkwang.ac.kr)

*** 교신저자 : 송희옥 (E-mail : sho3175@hanmail.net)

다.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아동의 생활에서 비 동거 아버지의 증가, 온전한 가족에서 아버지 역할의 증가,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이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Lamb, 2000).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더욱 필요로 하고 가족 크기의 감소는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자녀의 주요한 훈육자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엄격하고 무심하며 먼

거리에 있는 인물로 도구적이고 과제수행 지향적이며 외부세계와 가정과의 관계를 원활히 상호작용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도구적,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며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되고 자녀의 동료적 역할,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로서 아동의 사회화에 어머니 역할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입되고 있었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부인과 더불어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하고자하는 의도와 마음이 준비 되어 있으며, 자녀들과 친밀한 유대를 통한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기존중감도 높아지고 있다(함인희, 1997). 아버지들은 경제제공자로서 보다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근무시간 이후 남겨지는 시간에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부드러운 '양육적 아버지'가 이 시대의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숙현, 2001).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비해 아동발달과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지적인 요인으로서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발달간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어떠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자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버지 역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및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역할 수행과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

아버지 행동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인성, 근원 가족, 환경 내에서 사회문화적 기대들에 의해 달라진다. 아버지 역할 수행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높게 하는 관련 변인은 아버지의 역할지각, 부부일치도, 본인 아버지에 대한 양육성의 지각 등이다 (허선자, 1993). 아버지 역할 행동에서 자녀 양육 참여에의 시간 소비량은 아버지 자신과 어머니의 근로시간의 융통성, 어머니의 임금률, 아버지와 자녀의 연령 등이 관련되며 (허경옥, 1994) 아버지 역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자녀의 성별 등은 아버지의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참여는 높으나 학력, 직업에 따른 실제역할 수행은 관련이 없다 (손미리, 1997; 허경옥, 1994)고 한다.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유아기 자녀 양육행동은 관련이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보다는 애

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김정옥·정영숙, 2003) 아버지의 놀이성은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놀이성 중 비행식성과 아버지 역할수행과 관련이 높았다(안선정, 2000).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역할 수행은 청소년 자녀의 연령과 아버지 연령, 학력, 월수입, 가정 내 의사결정권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김보금·송순,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성역할, 친사회적 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반응과는 무의미하였으나 아버지의 가사참여도는 아동의 정서반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정현희·최경순, 1995).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직접적인 자녀양육참여와 가사노동에 참여와 같은 간접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은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특히 양육신념이란 아버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신뢰의 정신적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써 아버지 양육신념은 아버지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나 목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아버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McGillicuddy -De Lisi, 1985). 아버지의 양육신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자녀의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양육 행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 결과 자녀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Goodnow, 1988). 신념은 단순한 태도나 가치와는 달리 개인에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지식이나 사상을 뜻하며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 및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귀인'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신념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인지적 요소의 구성체로서 부모 행동을 지도하고 부모-자녀관계와 아동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신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들은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혜, 1993).

부모의 양육 신념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Stevens, 1984), 부모 역할하기 (Luster & Rhoades, 1989), 자녀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Okagaki & Sternberg, 1993 ; Sigel, 1989), 또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Stevenson, Chen & Uttal, 1990)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다 근원적인 것과 부모의 양육경험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며 (Kochanska, Kuczynski, Radke-Yarrow, 1989)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과 부모의 교수법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교수행동보다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이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을 더 예측

할 수 있다(Johnson, 1980)고 한다.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분야에서 자기지각이 정확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Johnson & Martin, 1992)고 한다.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다양한 신념은 부모 행동에 지침이 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의 질은 자녀의 자기 지각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은하(1981)는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지각의 장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더 지배적이고 처벌적이라고 하였다. 딸의 여성성은 어머니의 여성성보다 아버지의 남성성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고(양장애, 1999), 아동의 또래지위지각에서도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많은 영향력이 있는(송순, 2002)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역할은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역량이 발달하는 아동기에 아버지역할과 아버지의 신념이 아동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국내연구에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유아의 부정적 감정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낮으며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나 친사회성 외의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아버지의 신념과 무관하였으며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대체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무관하였다(김은지·박성연, 2002)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인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관계가 있으나 아동의 성과 가족의 소득 수준은 관계가 없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도와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하는 원인을 아동의 내적 요인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아버지는 남아보다 여아를 더 수동적인 존재로 지각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독립심’을 강조하며 남아를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여 사회적 행동을 지도할 때 간접적인 모델링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은 소득수준이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무관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지도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김은지·박성연, 2002). 그러나 위의 연구는 유아기 자녀와 아버지 신념과의 관계이며 아동기 자녀와 아버지 신념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2.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

아동의 자기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훌륭한 발달적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다양한 역량과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지각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능력지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관계 등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되는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능력지각이란 일종의 자기가치(self-worth) 또는 자아개념(self-concept)의 형태로서 특히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의 지각을 말한다.

아동의 역량과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은 아동의 발달에 중추적인 영향을 담당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초이다.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연령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은 8세 이상이 되면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전반적 자아가치 등에 영역별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Coopersmith, 1967 ; Harter, 1982).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연령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7학년에서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강민주·전경숙, 1995; Harter, 1982 ; Stipek & MacIver, 1989). 초등학교 2-3학년 이전단계의 어린 아동들은 자기능력 평가 시에 주어진 수행과제의 난이도를 바르게 인식함 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실제의 자기능력보다 과대하게 자기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Nicholls, 1978).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능력지각에는 차이가 없다(강민주·전경숙, 1995 ; 한종혜, 1995)는 연구결과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역량과 신체외모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고(김연하, 1998 ; 이주리·유안진, 1991) 남아가 운동역량·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Stigler, 1985)하고, 남아가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 한다(공인숙, 1989 ; 김치영, 1987 ; Harter, 1982 ; Neglon·Colon, 1990)는 결과들이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과잉통제 및 제한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고 부모의 과잉통제 및 제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박인전, 1998). 그러나 출생순위와 자기능력지각은 관련이 없으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간에는 관련이 있다(김연하, 1998)고 한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연령, 사회적지지 순이었다(강민주·전경숙, 1995).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는 또래에게 우호적이고 집단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Jacobs 등, 2002)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연구(전경숙, 1992)에서 어머니 신념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

고 아버지 신념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게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 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아동 간 신념의 일치도가 높고 낮음은 아동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채택한 가족신념면접 척도는 그 성질이 일반적인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예측을 통해 신념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발달 과정이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신념과 차이가 있다고 연구자는 논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양육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행동, 신념은 아동 발달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아버지 신념과 아동 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신념과 관련된 배경들은 무엇이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또는 아버지의 신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아버지 역할 수행의 방향과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북 I시와 K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녀 아동과 그들의 아버지를 쌍으로 하였으며 167쌍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가 응답하게 하였으며 결혼만족도, 생활수준,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주관적 평가이다. 생활수준과 자녀와의 관계 응답은 '아주 좋은 편', '좋은 편'은 상, '보통'은 중, '나쁜 편', '아주 나쁜 편'은 하로 응답 내용을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업 또한 6개의 범주를 세개로 재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8명을 제외하고 대부분(157명)은 양친이 함께 하는 상황이다. 맞벌이 가정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어머니의 직업수준은 아버지 보다 낮은 편이었다. 부 연령은 아버지가 자신의 나이를 직접 기재하게 하였으며 분포는 30~52세 사이이며 50대가 2명뿐이어서 이를 30~40세, 41~52세로 집단을 나누었다.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비교적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아동들에 대한 정보는 남아(74명) 여아(80명)이며 총 자녀수는 1명(14) 2명(111) 3명(35) 4명(6)이며, 자녀들의 출생순위는 장남장녀(86) 차남차녀(36) 차남이하(6) 외동이(14) 막내(13) 무응답(11)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아버지)들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연령	30-39	70(42.2)	종교	있음	108(64.7)
	40-49	90(52.4)		없음	59(35.3)
	50-52	2(1.2)	결혼상태	부부함께	157(94.0)
	무응답	7(4.2)		혼자, 재혼	8(4.8)
학력	중졸이하	11(6.9)	결혼만족도	만족	125(75.3)
	고졸	61(37.5)		보통	38(22.9)
	대졸이상	89(53.6)		불만족	3(1.8)
직업	생산, 서비스	29(17.5)	양육에 대한 의견일치도	일치	133(79.6)
	자영, 사무직	55(33.1)		충돌	26(15.7)
	회사원, 전문직	82(49.3)		불일치	6(3.6)
월 소득	150만 이하	70(42.2)	자녀와의 관계	좋은 편	63(38.0)
	150-250만	56(33.8)		보통	100(60.3)
	251만 이상	40(24.0)		나쁜 편	3(1.8)
생활수준	상	38(22.9)			
	중	113(68.1)			
	하	15(9.0)			

2. 측정 도구

1)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념 척도는 Okagaki와 Sternberg(1993)의 부모 신념 질문지 PBQ (Parental Belief Questionnaire)와 김경혜(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어휘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신념척도는 자녀의 독립적이거나 순응적인 행동 발달과 관계가 있는 자녀양육신념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독립적인 행동을 발달시키는 하위항목은 문제해결능력 5문항, 창의적 능력 4문항, 실제적 능력 9문항이며, 순응적인 행동발달의 하위항목은 순응성 5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으며 아버지신념 전체는 .76, 독립성에 대한신념 .73, (문제해결능력 .57, 창의적능력 .64, 실제적능력 .54), 순응성에 대한 신념 .50이었다. Okagaki & Sternberg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51~.81이었다.

2) 자기능력지각(perceived competence)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가 개발한 SPPC (Self -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이진화(1993)가 번역,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 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 외모, 행동 품행, 전체적 자아 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다섯 문항씩 총 30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계산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 값)는 아동의 자기지각 전체에 대한 신뢰도값은 .92이며, 학업역량 .68, 사회적수용 .71, 운동역량 .77, 신체 외모 .82, 품행 .71, 전반적자아가치.74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I시의 초등학교 2개교, K시의 초등학교 2개교 총 4개교의 학생에게 300부의 설문지를 돌렸다. 아동용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89부이었다. 아버지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전달한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79부이었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아버지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67쌍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응답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구했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계산하였다. 변수에 대한 타당도는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편이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t-test, one-way ANOVA-test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표 2>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 척도

아버지신념		문항 번호	설문내용
독립성	문제해결 능력 $\alpha=.57$	5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6	자녀가 자신의 속도대로 일을 해나가도록 놔두어야 하며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0	자녀가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순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12	자녀가 무언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13	자녀가 사물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창의적능력 $\alpha=.64$	7	자녀가 책 속에서 보다 상세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11	자녀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질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14	자녀와 함께 가상놀이를 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적 능력 $\alpha=.54$	17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19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준비물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	자녀가 집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작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21	자녀가 밖에서 걸옷이나 신발을 언제 입고 신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22	자녀가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3		자녀가 자기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24		자녀가 시간을 잘 기억하며 시간을 지켜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순응성	순응 $\alpha=.50$	25	자녀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동생을 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6	자녀가 숙제를 제시간에 제출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27	자녀가 혼자 집 근처의 이웃집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8	자녀에게 한번에 한 가지씩 간단한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9	자녀에게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15	자녀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하게하며 이야기 할 때는 정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16	자녀가 공중도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18	자녀가 몇 시간 동안 TV를 보며 몇 시에 자야 할지에 관해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표 3> 자기능력지각척도

요인항목 (신뢰도값)	문항 번호	문항내용
학업능력 (a= .68)	84	나는 학교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85	나는 학교과제를 잘한다.
	86	나는 배운 것을 잘 기억 한다.
	87	나는 경시대회에 자주 나가는 편이다.
	88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아주 잘하는 편이다.
사회적수용 (a= .71)	89	나는 친구와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90	나는 친구들이 많다.
	91	나는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92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93	나는 친구들에게 너그럽게 대한다.
운동역량 (a= .77)	94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하는 편이다
	95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을 잘 한다
	96	나는 체육시간이 즐겁다.
	97	나는 운동이나 놀이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한다.
	98	나는 새로운 놀이나 활동을 금방 따라 할 수 있다.
신체외모 (a= .82)	9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다.
	100	나는 내 체격에 만족하는 편이다.
	101	나는 옷차림이 늘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다.
	102	나는 내 신체조건이나 생김새가 마음에 든다.
	103	나는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행동품행 (a= 71)	104	나는 내 행동들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105	나는 내 행동들에 대해 자주 칭찬을 받는 편이다.
	106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107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하지 않는다.
	108	나는 공손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편이다.
자아가치 (a= 74)	109	나는 행복한 편이다.
	110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112	나는 현재의 내 자신에 만족한다.
	113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의 차이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은 독립성(문제해결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의 영역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 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집단을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독립성 영역에서 자녀수(p<.05), 아버지학력(p<.05), 아버지직업

(p<.05), 생활수준 (p<.05), 자녀와의 관계(p<.01) 등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순응성 영역에서는 생활수준(p<.01), 자녀와의 관계(p<.01)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독립성 영역에서는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양육신념이 높았고,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직업 수준이 높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신념이 높았다. 순응성 영역에서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순응성 영역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신념이 높았다.

<표 4>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신념

변수	집단구분N	독립성			순응성	변수	집단구분 N	독립성			순응성
		문제해결 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			문제해결 능력	실제적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성
자녀 성별	남 74	4.17	4.05	3.88	4.02	생활 수준	좋은편 37	4.23 b	4.15	4.00 b	4.22 b
	여 80	4.23	4.01	3.93	4.04		보통 113	4.18 b	3.99	3.87ab	3.93 a
	t 값	-.90	.46	-.57	-.16		나쁜편 15	3.92 a	3.90	3.66 a	4.08ab
						F 값	2.60*	1.33	1.94*	5.11**	
자녀수	1~2명 125	4.29	4.03	3.91	4.03	직업	서비스 24	4.15	3.83	3.76 a	4.06
	3~4명 41	4.02	4.00	3.81	3.99		일반사무직55	4.19	4.07	3.84 ab	4.05
	t 값	2.52°	.32	1.01	.40		전문직 77	4.20	4.09	4.02 b	4.00
						F 값	.15	.17	3.14*	.27	
연령	30-40세 95	4.18	4.01	3.87	4.05	결혼 만족도	만족한다 125	4.20	4.02	3.89	4.02
	41-52세 71	4.17	4.05	3.92	4.03		보통이하 41	4.07	4.04	3.88	3.97
	t 값	-.19	.44	-.60	.45		t 값	1.25	-.13	.13	.05
학력	고졸이하 72	4.16	4.06	3.77	4.07	양육 일치도	높은편 133	4.18	4.01	3.92	4.02
	대졸이상 89	4.19	4.02	4.01	3.98		낮은편 32	4.16	4.28	3.00	3.97
	t 값	-.43	.48	-2.81**	1.37		t 값	.29	-.59	1.20	.59
월수입	150미만 70	4.14	4.04	3.81	3.99	자녀와 관계	아주좋은편63	4.23 b	4.08	4.05 b	4.16 b
	151-250 56	4.19	4.11	3.99	4.00		좋은편 78	4.18 b	3.99	3.85 b	3.95 a
	251이상 41	4.20	3.99	3.98	4.09		보통이하 25	3.99 a	3.98	3.59 a	3.83 a
						F 값	2.50*	.43	6.60***	5.32**	

2.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의 배경변수들은 아버지가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독립 변수들은 집단구분을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으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전체적인 자기능력지각은 성별, 자녀수, 아버지 학력, 월수입, 직업,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역량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 학력(p<.01), 아버지 월수입(p<.001), 아버지 직업(p<.01), 자녀와의 관계(p<.05)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학업역량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사회적수용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p<.05), 아버지의 학력(p<.01), 자녀와의 관계(p<.05)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이 사회적수용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운동능력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 학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운동능력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신체외모에 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수(P<.05), 아버지의 학력(p<.001), 가정의 월수입(p<.01), 아버지의 자녀와의 관계(p<.01) 등이 유의미 하였으며 자녀수가 많은 집단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 월수입이 많은 집단,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이 신체외모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행동품행에 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의 성별 (p<.05), 아버지학력(p<.001), 월수입(p<.05), 자녀와의 관계(p<.05)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 월수입이 많은 집단,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이 행동품행에 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전반적자아가치에 관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의 학력(p<.001), 월수입(p<.05), 아버지직업(p<.001), 결혼만족도(p<.001), 자녀와의 관계((p<.001)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아버지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고,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결혼생활이 만족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이 전반적자아가치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표 5>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변수	집단구분 N	학업 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신체 외모	행동 품행	자아 가치	전체적 자기지각
자녀 성별	남 74	2.94	3.03 a	3.14	2.92	2.84 a	3.15	3.00
	여 80	2.91	3.25 b	3.09	3.01	3.06 b	3.30	3.11
	t 값	.35	-2.28*	.43	-.72	-2.21*	-1.68	-1.36
자녀 수	1~2명 125	2.93	3.15	3.09	2.89	2.94	3.19	3.03
	3~4명 41	2.89	3.11	3.18	3.17	2.91	3.23	3.09
	t 값	.33	.42	-.78	-2.05*	.30	-1.38	-.59
종교	유 102	2.87	3.15	3.10	2.95	2.89	3.21	3.03
	무 59	2.98	3.11	3.08	2.97	2.98	3.19	3.05
	t 값	-1.16	.80	.23	.65	-.79	.16	-.20
연령	30-40 95	2.86	3.12	3.09	2.96	2.92	3.21	3.03
	41-52 71	2.99	3.16	3.13	2.95	2.96	3.19	3.07
	t 값	-1.14	-.52	-.33	.13	-.42	.25	-.42
학력	고졸이하72	2.77	3.01	2.96	2.72	2.74	3.00	2.87
	대졸 89	3.04	3.25	3.22	3.74	3.09	3.36	3.19
	t 값	-2.94**	-2.62**	-2.47*	-3.52**	-3.55**	-3.73**	-4.20**
월수입	150미만 62	2.74 a	3.08	3.05	2.74 a	2.82 a	3.05 a	2.92 a
	151-250 56	2.78 b	3.18	3.17	3.08 b	2.95 ab	3.26 ab	3.11 ab
	250 이상41	3.18 b	3.28	3.19	3.21 b	3.12 b	3.39 b	3.29 b
	F 값	7.25**	1.46	.67	5.63**	2.69*	4.15*	5.26**
직업	서비스 24	2.69 a	2.98	3.20	2.77	2.78	3.05 a	2.92 a
	회사은행56	2.83 ab	3.11	3.07	2.86	2.92	3.05 ab	2.98 ab
	전문직 77	3.08 b	3.25	3.16	3.10	3.05	3.38 b	3.78 b
	F 값	5.87**	2.41	.45	2.69	1.95	6.37***	4.22*
결혼 만족도	만족 125	2.95	3.18	3.11	3.02	2.98	3.29	3.09
	보통이하41	2.82	3.02	3.10	2.76	2.79	2.95	2.91
	t 값	1.16	1.52	.08	1.94	1.72	3.18***	2.08*
의견 일치도	높은편 133	2.94	3.15	3.13	2.96	2.92	3.21	3.06
	낮은편 32	2.83	3.14	3.07	2.94	2.99	3.19	3.03
	t 값	.95	.10	.50	.18	-.50	.19	.27
자녀와 의관계	좋은 편 63	3.06 b	3.27 b	3.07	3.09 b	3.04 b	3.34 b	3.15 b
	보통 78	2.87 ab	3.06 a	3.15	2.98 b	2.94 b	3.21 b	3.04 b
	나쁜 편 25	2.70 a	3.06 a	3.10	2.54 a	2.63 a	2.80 a	2.81 a
	F 값	3.77*	2.43*	.25	4.89**	3.78*	7.35***	4.23*

3.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간의 관계를 예비 분석한 결과 서로 상관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에 대한 신념과 순응성에 대한 신념을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는 방정식 II의 결과만을 표시하였다.

먼저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성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을 방정식 I에서 계산하였고 독립성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에 순응성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을 추가하는 방식을 방정식 II에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전체적 자기능력지각과 아버지의 신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4.62^{***}$) 독립성에 대한 신념의 설

명력($R^2=.07$)이 약 7% 정도이며 순응성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R^2=.10$)이 약 10%로서 설명력이 약 3% 증가하였다. 독립성 중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련이 깊었으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각 하위 영역별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학업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R^2=.03$)은 약 3%였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5$)은 5%로서 약 2%가 증가하였다. 독립성 중 창의적 능력($\beta=.24^*$)과 순응성($\beta=-.19^*$)이 유의미하였으며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학업능력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높았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사회적수용을 설명하는 설명력($R^2=.04$)은 약 4%이었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

명력($R^2=.07$)은 3% 증가하였다. 독립성 중 창의적 능력($\beta=.29^{**}$)과 순응성($\beta=-.20^*$)이 유의미하였으며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사회적 수용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운동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R^2=.07$)은 약7%이었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7$)의 증가는 거의 없었으나 창의적 능력($\beta=.30^{***}$)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순응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운동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신체외모를 설명하는 설명력($R^2=.06$)은 약6%이었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8$)은 약2% 증가하였으며 창의적 능력($\beta=.34^{***}$)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 때 아동의 신체외모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행동품행을 설명하는 설명력($R^2=.05$)은 5%이었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10$)은 약5% 증가하였으며 창의적 능력($\beta=.28^{**}$)과 순응성($\beta=-.29^*$)이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자아가치를 설명하는 설명력($R^2=.03$)은 3%이었으며 독립성에 순응성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R^2=.06$)은 약3% 증가하였으며 창의적 능력($\beta=.27^{**}$), 순응성($\beta=-.19^*$)이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낮을 때 아동의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경제적, 가정생활)에 따라 어떠하며,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하며, 아버지의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독립성 영역에서 자녀수, 아버지학력, 아버지직업, 생활수준, 자녀와의 관계 등이 유의미하였고 순응성 영역에서는 생활수준, 자녀와의 관계 등이 유의미하였다. 즉 독립성 영역에서는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아버지 신념이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지각한 집단과 직업수준이 서비스직보다는 일반사무직이나 전문적 집단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아버지 신념이 높았다. 순응성 영역에서는 생활수준이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순응성 영역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신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념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관계가 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김은지·박성연,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아버지들은 창의성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순응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생활수준이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집단의 아버지들이 창의성에 대한 신념과 동시에 순응성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고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고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성에 대한 신념이 높았으나 순응성에 대한 기대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송순, 송희옥, 2003)는

<표 6>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 (방정식II의 결과)

종속변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	전체적인 자기지각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독립성	문제해결능력	-.36 (-.07)	-.10 (-.02)	-.85 (-.12)	-1.60 (-.18 [*])	.78 (.11)	-.43 (-.07)	-.07 (-.07)
	창의적 능력	1.07 (.24 [*])	1.43 (.29 ^{**})	1.9 (.39 ^{***})	2.28 (.34 ^{***})	1.59 (.27 ^{**})	1.43 (.27 ^{**})	.33 (.38 ^{**})
	실제적 기술	-.2 0(-.05)	-.51 (-.10)	-.68 (-.12)	.15 (.02)	.02 (.00)	.28 (.05)	-.04 (-.04)
순응성	순응성	-.22 (-.18 [*])	-.27 (-.20 [*])	-.62 (-.09)	-.22 (-.14)	-.38 (-.29 ^{**})	-.24 (-.19 [*])	-.05 (-.23 [*])
방정식 I의 R ²		.03	.04	.07	.06	.05	.03	.07
방정식 II의 R ²		.05	.07	.07	.08	.10	.06	.10
F값		2.12	2.87 [*]	3.17 [*]	3.37 ^{**}	4.53 ^{**}	2.43 [*]	4.62 ^{***}

결과와 비교가 되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더 지배적이고 처벌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김은하, 1981)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아버지 역할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칫 아버지 역할을 통제적인 역할 쪽으로 방향 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역할하기 교육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자녀성별, 자녀수, 아버지 학력, 월수입, 직업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고, 아버지직업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일수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았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사회적수용과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고, 자녀수가 많은 집단이 신체외모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으며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등 전체적인 자기지각이 높았다. 아버지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학업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고 전체적 자기지각이 높았다. 아버지직업이 회사은행이나 전문직일수록 학업역량,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고 전체적인 자기지각이 높았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동이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으며 전체적인 자기지각을 높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의견일치도는 집단간에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련이 없으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동이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으며 전체적인 자기지각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아동이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부와 모의 양육의견일치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무관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높게 지각한다(강민주·전경숙, 199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다른 관점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송순·송희옥, 2003)와 비교해볼 때 특기할 사항은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자기지각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아버지와 자녀관계와 관련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더 깊히 관련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전체적 자기지각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능력지각의 각 하위영역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순응성에 대한 신념보다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컸으며 독립성 중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아버지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아버지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버지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 중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등 전체적인 자기능력지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아동은 자기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아동은 학업능력, 사회적수용,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첫째,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신념은 자녀수, 아버지 학력, 직업, 생활수준,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 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버지학력, 월수입, 직업수준과 같은 아버지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결혼만족도, 아버지 아동간의 관계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셋째, 아동 양육에 대한 아버지신념은 아동의 전체적 자기능력지각에 영향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창의성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긍정적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순응성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아동은 학업성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연구문제1과 3과의 결과를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사실은 자녀수가 적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직업이 전문직이며, 아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들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특히 아버지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능력지각을 높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순응성에 대한 아버지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능력지각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질문하도록 격려하거나, 가상놀이를 통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유도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양육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첫째 표집이 지역사회에 국한된 임의 표집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상 아동 3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으나 아버지 설문지의 수집이 저조하여 167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논문에 비해 양육태도와 아동발달간의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아버지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논의에서 다양한 결과들과 비교하지 못한 점 등이다.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양육신념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논의에서 비교되었던 몇 개의 논문들의 아동역량에 대한 측정이 동일한 척도들이 아니었던 점들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의 의의는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서 창의성에 대한 신념과 동시에 순응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순응성에 대한 신념은 오히려 아동의 학업, 사회적응, 행동문제, 전반적인 자아 가치를 낮게 지각하도록 함으로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한 점이다.

- 접수일 : 2004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1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2월 11일

【참 고 문 헌】

- 강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7.
- 강민주·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2-210.
- 김경혜(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보금·송 순(200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정도 와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2), 17-33.
- 김은지·박성연(2002).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정옥·정영숙(2003).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7(2), 141-161.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박인전(200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 박성연·도현심·정승원 공역(1996). 부모신념의 발달, **부모-자녀관계**. 학지사. 66-111.
- 박인전(1998). 아동기 부모-자녀의 결합형태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3(2), 107-132.
- 배형만(1991). 부모와 교사의 아동교육신념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지각 분석.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5-139.
- 송 순(2002). 아동의 또래지위지각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47-159.
- 송순·송희옥(200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17-432.
- 안선정(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3(2), 75-85.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경화·고진영(1998).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1), 61-74.
-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이주리·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화(1993). 연령, 성별, 사회 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전경숙(1992). 부모-아동 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1996). 부모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가족학논집**, 8, 43-55.
- 정현희·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 최경순·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행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문화**, 2집(여름호), 1-24.
- 허경옥(1994).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허선자(1993).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교육학연구**, 31(5), 131-150.
- Anderson, M & Hughes, H. 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7-56.
- Block, J. H & Robins, R. W.(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 909-923.
- Burbach, A. D., Fox, R. A.(2004). Challeng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 The father's Rol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5(2), 169-183.
- Buzzelli, A.(1989). Parents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for

- promo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9(4), 273-284.
- Cabrera, N. J., Tamis-LeMonda, Bradley, R. H., Hofferth, S., Lamb, M. E.(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ix, T, & Grusec, J. E.(1985). Parental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Sigel, *Parental belief systems*(201-233). Hillsdale, N J. Erlbaum,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96-320.
- Harter, S.(1982b).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5).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formation in children. In J. Sul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3, 132-182) Hillsdale, N. J. : Erlbaum.
- Harter, S.(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43-70). New York : Springer-Verlag.
- Honess, T. M. & Lintern, F.(1990). Relational and systems methodologies for analys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conflict, support and independence in adolescence and post-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31-347.
- Jacobs J. E., Lanza, S., Osgood, D. W., Eccles, J. S., Wigfield, A.(2002). Changes in children's self-competence and values : Gender and domain differences across grades one through twelve. *Child Development*, 73(2), 509-527.
- Johnson, J. E., & Martin, C. (1992).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mother'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competencies, In I. E. Sigel(Ed), *Parent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95-113). Hillsdale, N. J. Erlbaum.
- Kochanska, G., Kuczynski, L., Radke-Yarrow, M.(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Kohn, M. L.(1979).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 In D. Reiss & H. Hoffman(Eds.). *The American Family : Dying or developing*. N.Y. : Plenum, 45-68.
- McGillicuddy-De Lisi(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Parental belief systems*. Hillsdale, N. J. Erlbaum.
- McGillicuddy-De Lisi(1992).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personal-social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115-142). Hillsdale, N. J. Erlbaum.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Nicholls J. G.(1978).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s of effort and ability, perceptions of academic attainment, and the understanding that difficult tasks require more ability. *Child Development*, 49, 800-814.
- Okagaki, L. & Sternberg, R. J.(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4-56.
- Sigel, I. E., McGillicuddy-DeLisi, A.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ETS RR-80-21). Princeton N. J.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 (345-371). Hillsdale, N. J. Erlbaum.
- Stevens, J. H.(1984a). Child developmental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s. *Family Relations*, 33, 237-244.
- Stevenson, H. W. Chen, C. & Uttal, D. H.(1990). Beliefs and achievement : A study of Black, White, and Hispan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508-523.
- Stipek, D. J., & Mac Iver, D.(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